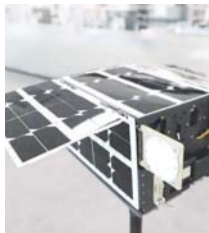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377.30	↑ 코스닥	1063.75
	(+143.25)		(+7.41)
↓ 금리 (연이자율)	3.448	↓ 환율 (원/달러)	1511.40
	(-0.029)		(-8.30)

20억 弗 우주 거는
삼성·SK
K-메모리 먹거리 다변화
04



트럼프, 이란에 “공격보류 기한 48시간 남아”

‘지옥문 압박’ 전쟁 긴장감 최고조

보류기한 내일 오후 1시 추정
美 “협상 응하든지 호르무즈 개방”
이란 “고강도 보복… 굴복 없을 것”

미군의 진격이나, 퇴각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만 인근 연장 대기나. 백악관이 추가로 설정한 ‘공격 보류’의 기한도 끝나 간다. 시한은 미 동부시간 4월6일 자정(한국7일 오후 1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제 48시간 남았다”며 휴전합의 등의 무산 시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고강도의 보복”을 각오 하라며 굴복은 없을 거란 성명을 대내외에 알렸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적은 글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란은 내가 열흘의 기한을 주면서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유예 기한에도 이란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스라엘방위군과 함께 4일 이란 영토내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습을 퍼부었다.

매체는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주 발



지난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남서쪽 카라지의 신설 B1 교량이 전날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돼 있다. /AP·뉴시스

리올라 하이티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 제1, 2 석유화학 단지를 비롯해 라잘, 아미르카비르, 아부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반다리암 석유화학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2월 말 전쟁 발발 후 부셰르 원전이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

다. 이어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만큼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바스이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4번이나 공격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길어지는 노후… ‘연금탑’ 쌓아 소득 확보

연금과 생존전략

1 노후의 버팀목 ‘연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이다. 앞선 해외 사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저출생도 지속돼서다.

韓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
은퇴~기대수명 소득공백 34년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
35만원씩 지급… 예산 23.3조

◆ ‘장수 리스크’ 본격화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크면 사회의 생산성은 감소하며 부양비용은 늘어난다. 국가데이터처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중이 지속 증가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기대 가능한 복지 수준도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늘어가는 반면, 은퇴는 앞당겨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나이는 49.4세다.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 3년 넘게 앞당겨졌다. 지난해 발표된 기대수명인 83.4세와의 격차는 34년에 달한다. 정부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법적 정년(60세)을 채우지

못한다.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장수 리스크는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관련 예산도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빈곤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기준 779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34만9700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올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총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소득이 낮은 수급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에게는 더 적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개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총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각종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 이전의 근로 소득을 노후로 재분배하는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 노후의 버팀목 ‘연금’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제도를 꼽은 응답자는 75.7%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8.5%에 달했다.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이나 주식·채권 투자, 부동산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제시한 비중은 23.3%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하다. <4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커버스토리

3500억 弗 투자… 美 관세 파고 넘는다

대미 1호 프로젝트 초읽기

美, 韓 ‘우호적 투자 파트너’ 공인
투자 매개로 관세협상 타결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협상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현시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

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 (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

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 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 ▲한병도 “李정부 민생지원금 선거용 아냐… 지금은 전쟁 추경” /사진 뉴시스
- ▲국힘 “중동사태로 의료 소모품도 대란… 긴급 생산지원책·행정조직 검토해야”

- ▲與 “지선 출마자들 李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 금지”… 강덕구 “잘못된 지침에 반대”
- ▲與 “식목일, 탄소중립 실천 출발점… 책임있는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

- ▲국힘 서울·부산 경선 레이스 고조… 집중 견제 받는 오세훈
- ▲지난달 ‘산불 진화’ 투입됐던 군 헬기, 실수로 D MZ 내부 진입